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관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2월 26일 수요일 (음 11월 20일) 제219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새만금 국제공항, 전북엔 필수”

“정부, 예타 면제하라”... 도내 각계 목소리 잇따라 재경전북도민회·전북애향운동본부 등이 동참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정부에 촉구하는 도내 각계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재경전북도민회는 지난 24일 “새만금 국제공항은 조속히 건설돼야 한다”며 “정부는 새만금 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경전북도민회는 이날 서울잠학숙 1층 사무실에서 도내 14개 시·군 향우회 사무총장과 여성위원 등 2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어 정부에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재경전북도민회는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자 국제 사업인 새만금 개발과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기철 재경전북도민회 상임부회장은

“새만금 공항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당장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항 건설을 막는 것은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도 배치된다”며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이 ‘잼버리 유치’와 ‘새만금개발청 이전’ 등을 계기로 다시금 희망을 품게 됐는데 핵심 인프라인 공항 건설이 미뤄져 물거품이 된다면 가뜩이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직격탄을 맞은 전북 경제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재경전북도민회는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이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반영해 예타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전북애향운동본부도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임병찬 전북애향운동본부 총재를 비롯해 임원진, 각 시군 해양본부장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애향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과거 전북도민의 극심한 소외와 분노, 지역경제 추락 등 현실을 직시하고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조사 면제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김진성 기자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정부에 촉구하는 도내 각계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재경전북도민회는 지난 24일 “새만금 국제공항은 조속히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광객 무료 무선인터넷 이용... 도내 관광지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시작

전북도, 11개 시군 39곳... 사용방법은 통신사 무관 'KOREA FREE WIFI' 선택

전북도는 도내 관광지 39개소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완료하고 전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한국관광공사 가 주관하는 2018년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공모사업에 참여, 한국관광공사-전라북도-SK텔레콤 통신사업자간 업무협약을 체결, 사업비 총7억 6천만

원을 투입, 도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에 SK텔레콤 통신사업자와 공공 와이파이를 공동 구축했다.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된 장소는 전주 예술테마거리, 행복플러스거리, 창작예술거리,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 장수군 방화동가족휴양촌 등 11개 시군 39개 관광지이며, 내년에도 관광지,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보건소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 공공 와이파이 사

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도 임삼규 기획조정실장은 “통신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서민과 소외계층의 가계비 부담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관광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9년에도 도내 시내버스 800

대를 대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시내버스 안에서도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누구나 인터넷 검색, SNS 등 모든 온라인 서비스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공공 와이파이 사용방법은 어느 통신사에 상관없이 와이파이 설정에서 'KOREA FREE WIFI'를 선택해 사용하면 되고 더 궁금한 사항은 전북도 정보화총괄과(063-280-3014)와 해당 시군 공공 와이파이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김진성 기자

‘익산 홀로그램 기술 개발’ 과기부 예타대상사업 선정

전북도 역점 추진

익산시와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이 지난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타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홀로그램(hologram)은 그리스어로 완전한(holo) 정보(gram)를 뜻하며,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반사되는 빛을 기록했다가 3차원상에서 재구성해 보여줌으로써 실제 사물을 보는 것과 동일한 입체감과 현실감을 제공해 주는 실감형 콘텐츠 기술이다.

전 세계 홀로그램 시장 규모는 2016년 약 14조 원에서 2030년 약 83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이 홀로그램 기술 확보와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국내 홀로그램 기술 수준

로그램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는 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

먼저 7대 핵심기술 개발 사업은 △홀로그램 콘텐츠 획득 기술(3D 공간정보 획득) △홀로그램 콘텐츠 생성 및 처리 기술(대용량 고속처리) △홀로그램 콘텐츠 재현 기술(무안경 3D 입체) △홀로그램 콘텐츠 인터랙션 기술(객체 및 공간 인식) △홀로그램 콘텐츠 프린팅 기술(볼륨형 홀로그램) △홀로그램 윈도우 광재현 기술(전면 유리 원거리 HUD) △플로팅 홀로그램 구현 기술(실시간 홀로그램)을 연구 개발한다.

또한 5대 실증화 사업은 7대 핵심 기술 연구 결과의 실용화·상용화 사업으로 △홀로그램 스마트 케어(홀로그램 진단/분석) △홀로그램 팩토리(홀로그램 디자인/설계/불량 검출) △홀로그램 헤리티지(문화재 복원/전시) △홀로그램 상용차(홀로그램 인포테인먼트) △홀로그램 스마트팜(홀로그램 에너지 관리)의 부문에서 홀로그램 콘텐츠 시제품 창출 및 시장 진입 사업을 추진한다.

- 실제 사물 보는 것처럼 입체감·현실감 제공
- 기존 실감 콘텐츠와 차별화
- 2020년부터 개발·사업화
- 지역경제 부흥 등 기대

은 최고 수준인 미국(100%)과 비교할 때 77.3%로 저조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은 홀로그램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고 기술 선도를 위한 국가 간 경쟁 가속화 속에서 홀로그램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하여 선진국의 기술종속을 피하고 홀로그램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사업은 3無(안경착용 무, 시각피로 무, 공간왜곡 무)를 지향하여 기존 실감 콘텐츠(3D/VR/AR)와는 차별화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4,000억원으로 2020년부터 2027년까지 7대 핵심기술 개발(2,800억)과 5대 사업화 실증(1,200억)을 하는 100% 연구개발사업이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전담하여 연구과제의 선정, 평가 등을 하고 산·학·연 중심의 컨소시엄으로 홀

또한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KT, SKT 등의 대기업이 기획에 참여하여 민간 분야와의 성과 연계를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 사업 실행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이춘식 국회의원은 홀로그램 사업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어 각종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인 지원과 대응으로 이번 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결실을 맺도록 일조했다. <관련기사 3면>

정현을 시장은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사업의 예타 통과에 이어 홀로그램 기술 개발 사업이 예타 대상에 선정됨으로써 익산시의 미래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이 마련됐다”며 “홀로그램 기술 개발로 미래사 지 문화유산 복원, 자동차산업 및 농업분야 스마트사업과 융합된 신사업 확장으로 익산시의 문화·경제적 부흥과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고창군 GOCHANG COUNTY

자연과 사람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세계 최고의 자연생태도시, 고창군

고창운곡람사르습지